제9강　충만한 사람들(德充符)Ⅱ: 덕충부

◆ 1교시 덕충부의 형상과 행복 ①

▲ 덕충부에 부합하는 형상

이편에서 장자는 세속 인간들의 형해 육체죠. 육체적 조건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고, 참다운 덕은 형상을 초월한 내면성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우리가 만날 소리 높이는 가치가 여기에 있는데, 글쎄요. 동의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행동이 그렇게 따라 가는지는 회의적이죠. 德充符란 德이 充滿한 표시[符](부)자예요. 곧 참으로 도를 체득한 인물이 자신의 수준 높은 내면성에 부합하는 형상을 갖춘다는 뜻이다. 덕이 충만한 인물에 부합하는 형상이란 오히려 형상에 구애되지 않는 것, 형상을 초월한 형상이다. 외모와 언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어떤 외모가 그렇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 모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외모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취향과 기준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것이라면 그게 어떤 맥락으로 외모를 이야기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외모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죠.
장자는 이를 밝히기 위해 세속의 사람들이 가장 추하다고 여기는 절름발이, 꼽추, 언청이 같은 불구자를 들어 그들로 하여금 도를 말하게 한다. **그로테스크한 기형불구의 인간들에게 도를 말하게 하는 장자는 형체에 구애받고 외형적인 것, 외적인 권력 등에 집착하는 세속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크게 비웃고 있다.**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고통이 없다면 그렇게 크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인간세편 여섯 번째 이야기 - 지리소의 행복

일단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드렸었지만 인간세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리소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덕충부에 더 어울린다 그랬죠? 왜냐하면 덕충부에 지리소 같은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 번 보죠. 원문을 한 번 같이 볼까요? 지리소자는 지리라고 하는 건 사지가 지리멸렬하다 이 뜻입니다. 지는 지체의 지예요. 支는 이 肢(지)자와 같습니다. 사지. 사지가 離(리) 떨어져 있다. 사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疏(소)라고 하는 것은 성글다. 엉성하다는 뜻입니다. 다 갖추어지지 못하고 여기저기 빠졌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뜻이죠. 이 사람입니다. 지리소. 사지가 지리멸렬한 지리소라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사실 번역할 때 굉장히 갈등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이 내용을 소화하

www.artnstudy.com

면서 우리말로 바꾸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지리소라는 사람은 이 은어제(隱於臍)하며 이는 턱입니다. 턱이 배꼽 밑에 은隱 숨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림이 됩니다. 턱 밑에 배꼽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견고어정肩高於頂 하며 견은 어깨죠? 어깨가 이마보다 더 높으며 그러면 뭐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따로따로는 뭐 그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다. 이게 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꼽이 여기 있다는 거죠? 옆에 어깨가 이렇게 있다는 이마가 여기라고 그러면 어깨가 더 높다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더 높다. 이렇게 될 텐데, 그 다음부터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어깨가 이마보다 더 높고,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상투라 하면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이럴때는. 하늘을 가리킨다. 회촬지체會撮指天 하며, 머리카락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끝으로 치솟아 있고, 하늘로 이렇게 쭉 뻗어 있고, 오장이 위에 있으며, 오장은 당연히 이렇게 갈비뼈가 있으면 그 아래로 배 부위가 있다면 여기 오장이 있고, 갈비뼈나 이런 쪽은 이 위에 폐는 이 위에 있네요. 그렇다 치더라도 오장 위니 이런 것들은 이 아래 소장이니 대장이니 아래에 있어야 할텐데, 위에 있죠. 위에 있고, 두 넓적다리는 옆구리에 다 있다. 대퇴부 넓적다리가 옆구리에 다 있는 거예요. 다리도 이상하고, 이게 이제 지리소의 모습을 형용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런 모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턱은 배꼽, 배꼽은 배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어깨는 이마가 어깨보다 높고 이래야 되는데 다 그것과는 반대가 되는 걸로 형용하고 있는거죠. 실제 그 모습보다는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게 이런 맥락을 따라서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바느질과 세탁으로 충분히 입을 풀칠할 수 있으며, 천한 일에 종사하는 겁니다. 바느질도 하고, 남의 옷을 빨아주는 일에 종사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겁니다. 호구. 좌침치해(挫鍼治繲)하야 족이호구(足以餬口) 하며 그리고 고책파장(鼓筴播精)하야 족이식십인(足以食十人) 이러니 그 키를 까부는 것. 고책이 아니라 고상이죠. 상자는 키라고 할 때는 이 키를 까불어가지고, 혹시 나다른 키에 도로 떨어지게 하고, 나머지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게 해서 까부는 거죠. 까불어서 타정. 쌀알을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서 족이사십인(足以食十人)이러니 먹을식자 인데 먹일사자로 씁니다. 열 명의 식구를 충분히 먹여 살린다. 그리고 상징무사(上徵武士)어든 이 사람이 이건 국가에서 무사를 징, 징집하게 되면 즉지리양비어기간(則支離 攘臂於其間)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붙잡혀갈까 봐요. 붙잡히면 전쟁이 나면 죽게 되니까 도망가잖아요?

근데 지리소는 양비어기간 그 사이에서 양비. 팔뚝을 긋고, 돌아다닌다. 마음대로. 아무도 안 잡아 가니까. 그리고 또, 상유대역(上有大役)이어든 위에서 큰 부역이 있게 되면, 뭐 성을 축조하게 된다든지 다리를 놓게 된다든지. 이런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즉지이리유상질(則支離以有常疾) 불수공(不受功)하고. 지리는 평소에 늘 병을 안고 있는지라, 기형불구니까요. 불수공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상여병자속(上與病者粟)이어든. 이 사람이 곧 국가에서 병든 사람들에게 속. 곡식을 내주게 되면 즉수삼종(則受三鍾) 여십속신(與十束薪)

www.artnstudy.com

이로라. 곡식 삼종을 받고, 또 그리고 십속신. 열꾸러미의 신. 뗄나무를 받는다. 자기 삶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부지이기형자 (夫支離其形者)도 그 몸뚱이가 지리멸렬한 사람도 유족이양기신 (猶足以養其身)하며. 이미 자기 몸을 기를 수 있으며. 종기천년(終其天年). 천년은 하늘이 준 천수입니다. 천수를 마칠 수 있는데, 우황지이기덕자호(又況支離其德者乎) 하물며 그 덕을 지리하게 하는 사람이겠는가? 몸뚱이를 지리하게 하는 사람도. 이 정도 자기 몸을 양. 양생을 할 줄 안다 이겁니다. 덕을 지리하게 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지리소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자기 몸을 잘 길러서 천수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지리소는 이제 자기 몸뚱이가 그렇게 지리한 사람인데, 그 몸뚱이가 지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욕심을 내지 않고, 그로 인해서 양신, 자기 몸을 잘 기르고, 그로 인해서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지리기득은 뭐냐. 그 덕을 지리하게 하는 사람. 즉 덕이라고 하는 자체가 욕심을 지나치게 부린다든지 이런 덕이라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덕 조차도 지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양신을 하고 천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도 훨씬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천수도 누리지 못하고, 양신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식으로 해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죠? 예를 들면 지리소의 이런 상황을 보고, 지리소 같이 어려운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더 나은 조건인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반성도 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거짓 위안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지리소 같은 사람에 대한 객관적 차별이 엄연히 있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객관적 차별을 없애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는 지리소는 행복하니까. 그런 이상한 궤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몸이 지리하다. 이런 의미는 몸이 완전치 않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덕이 지리 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떤 목적이나 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 더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미 그러면 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건 논의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잠시 뒤에 절름발이 숙산무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기가 이미 숙산무지라는 사람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무지라는 이름에서 발뒤꿈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발 잘린 사람이거든요? 이가 공자를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공자가 뭐라고 나무랐는데, “제가 이미 발을 잃었지만 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세편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런 의미고요. 지리기덕. 계속 염두해 주십시오. 지리기형은 분명하게 이해가 가죠? 몸이 지리멸렬한 사람. 덕을 지리멸렬하게 하다? 덕을 다시 지리멸렬하게 한다니 무슨 뜻인가? 하는데, 그게 덕이라고 하는 걸 추구해야 할 어떻게 보면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다. 이런 의미로 보면 지리기덕이라는 게 일단은 이해가 될 건데. 과연 그 이야기 일 뿐인가? 그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건 뭐. 장자를 보통 도가로 분류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노자와

www.artnstudy.com

장자. 이런 식으로 계열화 시키고, 공자와 맹자를 계열화 시켜서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보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하고, 오히려 덕충보 같은 걸 읽으면서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巧言, 말을 잘 하는 겁니다. 말을 왜 의미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잘 꾸민다는 뜻이거든요? 영색. 얼굴색을 착하게 꾸민다는 거예요. 착할 령이에요. 이런 사람치고 어진 사람이 없다. 드물다. 어진 사람은 드물다. 종결사죠. 어진사람 드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장자 덕충보와 비슷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불유축타지. 축타란 사람. 축인 타에요. 축타의 말재주. 축타의 말재주. 이유송조지미.. 송조라는 사람의 미색이 남자입니다. 미색이 없다면 나누면 금지색이라. 요새 살아가는 데 힘들겠구만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재주나 미색. 외형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당시 사람들이 추구한 것을 공자가 개탄한거죠. 비슷한 거죠. 덕충보에서 말한 바와 아주 비슷합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른바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바로 장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이런 가치와 외형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덕충보 편으로 들어가서 덕충보 편의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 절름발이 왕태

왕태(王駘)가 나옵니다. 또 있다 오나라 애태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절름발이 왕태에도 '태'자가 붙어있고, 애태타에도 '태'자가 붙어 있어요. 태와 타. 이게 전부 낙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타. 낙타는 곱사등이라는 뜻이거든요? 낙타간다. 낙타간다. 이런 거죠. 종숙 곽탁타라고 했습니다. 종숙 곽탁타 열전이라고, 곽탁타가 수목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원예에 대가입니다. 이 곽탁타가 곱사등이거든요? 사람들이 낙타간다. 낙타간다. 해서 곽탁타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나를 받아들이기에 꼭 맞는 말이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낙타 낙타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왕태 그랬고, 애태타는 절름발이 이면서 동시에 곱사등이 인거죠. 이제 절름발이 왕태가 나오는데, 태자가 있는 걸로 봐서 곱사등이인 것까지 합니다. 그럼 보죠. 그것도 이제 길기 때문에 일부만 인용을 해놨는데, 노(魯)에 유올자왕태(有兀者王駘)어늘 노나라에 올자 왕태가 있었는데, 올이라는 게 올자가 바로 절름발이 발 잘린 사람입니다. 발 잘린 형벌을 받은 왕태란 사람이 있었는데, 종지유자(從之遊者) 그를 따라서 유. 배우는 제자가 중니로 여중니(與仲尼) 중니와 함께, 중니는 공자의 자죠. 상약(相若), 서로 같았다.

공자의 제자는 신통유괴자칠습유유의라고 그러고, 몸의 유의를 익힌 자가 70명이라고 그랬고, 제자가 삼천여명이라고 그러죠. 삼천 명은 과장이겠죠. 뭐 어쨌든 심지어 먼 곳에서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천하의 제자 많은 사람이 공자입니다. 삼천명이란 숫자는 맹상군의 식객도 삼천 명이라고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랬다 그러니까. 많다는 수로 했는데, 공자의 따르는 제자가 삼천 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사로 봐야 되겠

www.artnstudy.com

죠. 많았다. 그 정도로. 근데 어쨌든 절름발이 왕태가 그랬다.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 상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1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꼭 뭐 1페이지 하단의 번역문을 보죠. 그는 절름발이 인데도 완태예요. 곱사등이기까지 합니다. 절름발이 인데도 선생님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하니. 또 제자가 많다고 하니. 저 같은 보통사람보다 더 뛰어난 분이 됐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어떻습니까? 마음 씀씀이가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니가 말했다. 죽고 사는 문제 또한 중대한 것이지만 그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 죽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떨어지지 않으며, 세상이 망가지면 같이 망가지죠. 사실은 그렇죠. 세상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내가 망가질 이유는 전혀 없는데, 같이 망가지죠. 그거는 아주 분명한 게 장자에 나오는데요. 천지복추(天地覆墜)하여 천지가 뒤집히고, 복추 할 때 복은 뒤집히는 겁니다. 땅이 하늘 위로 가버리고 하늘이 땅 밑으로 가 버리니까 복이죠. 추는 하늘이 떨어지는 겁니다. 역장불여지유(亦將不與之遺)하며, 또한 그로 인해서 유. 함께 없어지지 아니하며, 또 심호무가(審乎无假)하야 무가는 거짓이 없다는 뜻이니까. 거짓이 전혀 없는 도를 잘 살펴서 이불여물(而不與物) 다른 사물과 함께 천(遷) 옮겨가지 아니하고, 또 명물지화(命物之化)하야 **만물의 변화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이수기종야(而守其宗也)하니라 그 으뜸이 가는 도를 지킨다.**

사생이 눈앞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망가져도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사물이 망가져도 그 사물 때문에 자기도 망가지지 않는다. 객관적 상황이 아무리 나쁘게 돌아가도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흔들리거나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그런 상황 자체를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으뜸이 되는 도를 지킨다. 누구와 비슷하냐면요. 맹자와 비슷합니다. 맹자를 보면 공자와 맹자 둘 다 비슷하죠. 세상이 혼란하다. 세상에 들어가서 숨는다. 그게 당시 은자들의 가치입니다. 혼란의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피세지사. 공자는 혼란하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맹자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대장부가 뭐냐? 득지. 뜻을 얻었다는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서 정치를 베풀 기회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을 얻어서는 여민유지하고, 또 경선천하하고, 둘 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덕도 도가 있는 세상. 유도지 세상. 도를 얻은 상태에서는 백성들과 함께 그 마땅한 도리를 말미암고, 뜻을 얻어서는 천하의 백성들과 함께 선을 실천하고, 도를 얻지 못하거나 뜻을 얻지 못해서는 덕을 얻지 못하면 독행지로. 홀로 그 길을 가고, 사람들이 안 따라줘요. 그럼 혼자 가는 겁니다. 이것도 뜻은 모두 써요.

그러면 독선지심 하는 겁니다. 홀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훌륭하게 하는 것. 남들이 망가졌다고 같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남들이 안와 그럼 혼자 가. 나 혼자 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장부예요. 맹자의 대장부. 대장부는 남자를 표현하는 말

www.artnstudy.com

로 쓰이지만 그 때는 흔들리지 않는 정신세계의 소유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맹자가 셉니다. 전혀 흔들리거나 하지 않죠. 득지도 못했고, 득도도 못했어요. 결국. 그렇게 못했어도 하여튼 독행지도하고, 독선지심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장부다. 여기서 보면 장자가 하는 얘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마무리 부분을 보죠. 중니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흐르는 물에는 비추어 볼 수 없고, 멈추어 있는 물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오직 멈추어 있는 존재만이 여러 사물의 멈춘 모습을 멈출 수 있다. 땅에서 생명을 받은 것 중에서는 오직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올바르니, 홀로 사철 푸르디푸르고, 하늘에서 생명을 받은 무리 중에서는 오직 요임금과 순임금만이 홀로 올바르니, 만물의 으뜸이다. 땅을 기반으로 속하는 것들. 초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하늘에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물들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동물 빼고 사람만 그렇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점. 멈추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객관적 조건이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삶과 죽음이 자신을 위협하고, 천지가 무너지고, 땅이 뒤집히고, 이래도 이 사람은 멈추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면 가지 않겠습니까? 왕태와 함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당장 목숨의 위협이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겠죠. 우리가 저는 그런 쪽의 가치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종교적 가치 중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마지막 삶의 궁극적인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무너졌을 때 어떤 절대자에 대한 절대자에 귀의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과 비슷한 정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 상황이나 자기 목숨이나 평소에 건강하라. 건강을 위해 지키기 위해 몸부림 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건강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부동의 경지.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왕태와 함께 함으로써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겠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왕태였다.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을 이미 겪었고, 그럼으로써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행히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 중생들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천지를 마음대로 부리고 만물을 어루만져서, 육체를 단지 잠깐 머물다 가는 거처로 여기며, 耳目의 감각을 허상으로 여기며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대상을 모두 하나로 여겨서, 참된 마음이 한 번도 사멸된 적이 없는 사람이겠는가. 그는 또 언젠가 날짜를 가려서 도의 경지에 올라갈 것이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따르는 것이니, 그가 또 어찌 제자 모으는 일 따위를 일삼겠는가."

www.artnstudy.com

◆ 2교시 덕충부의 형상과 행복 ②

▲ 두 번째 이야기 - 백혼무인의 제자 신도가와 자산

자 이제 덕충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신도가(申徒嘉)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신도가하고, 자산(子産). 자산 말할 것도 없이 정나라의 자산입니다. 정자산. 공자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정치가죠. 그 신도가는 절름발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누구의 스승이냐면 백혼무인(伯昏无人)이에요. 백혼무인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지만, 이게 어두울 혼자거든요? 눈이 어두운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백혼무인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일부만 인용을 해놨기 때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산이 신도가하고 백혼무인에게 배우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와서 자산이 신도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가 한참 있다가 나와라. 아니면 자기가 먼저 나갈 거 같으면 먼저 나가라. 그럼 내가 한참 있다가 나가겠다. 왜 그러느냐. 절름발이 신도가와 같이 다니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너하고 같이 다니기 싫으니까 너 먼저 나가면 내가 나중에 있다가 가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먼저 나갈테니까, 네가 나중에 와라. 이랬죠. 그러니까 신도가가 자산에게 하는 말을 제가 써 놓은 겁니다.

신도가가 말했다.
선생님의 문하에서도 참으로 이와 같이 집정자니 뭐니 하는 구분이 있는가? 자산은 집정자라는 말에 정치를 담당하고 나 같이. 이 집정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네 같은 천한 사람과 같이 다닐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신도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혼무인의 문하에서도 그런 구별이 있는 거냐? 자네는 바로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남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자산보고 질타하는 거죠. 내가 듣건대, '거울이 깨끗하면 티끌이나 때가 붙지 않는다.'고 하니, 티끌이나 때가 붙으면 그 거울은 밝게 비추지지 못한다. 오랫동안 현인과 함께 있으면 허물이 없어진다. 지금 자네가 큰 道를 배우겠다고 모시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 백혼무인인데, 아직도 이와 같이 말을 하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비판하는 말이 또 있죠?

신도가가 말했다.....내가 선생님과 노닌 지 19년이 되었는데, 백혼무인과 같이 노닌지. 한 번도 내가 절름발이임을 의식하지 않았다. 지금 그대는 나와 육체의 내면에서 交遊하고 있는데도, 덕우로 사귀고 있는 거죠? 덕우. 이 덕우라는 말은요 맹자에 나옵니다. 우야자는

www.artnstudy.com

우는 벗으로 사귄다는 뜻입니다. 벗으로 사귄다고 야자. 이 설명문 형식이에요. 벗으로 사귄다고 말하는 것은 우기 덕야라. 그 사람의 세력이나 이익을 보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 덕을 사귀는 것이다. 이게 맹자의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내면의 가치. 이 덕으로서 교류하고 있는데, 그대는 나를 육체의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형에서 이 형체에서 다리가 절름발이라고 해서 나를 찾고 있으니, 또한 잘못이 아닌가? 유어 형해지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의 안에서 사귀는데, 그대는 나를 형해의 바깥, 외면의 육체를 기준으로 나를 찾으니 나의 가치를 따지니 불역과오와. 잘못된 게 아닌가? 따진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깜짝 놀라면서 얼굴색을 바꾸고 태도를 고치고서 말했다.

“자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겁니다. 다시는 차별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백혼무인이라는 장님 스승 밑에 신도가라는 절름발이 불구의 제자와 자산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배우는 거예요. 누구와 비슷한 모양이냐면 공자와 비슷해요. 공자 밑에 그 제자를 보면요. 애태타 얘기할 때 민자가 잠깐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좀 이따가 얘기하구요.

▲ 세 번째 이야기 - 숙산무지와 공자

숙산무지(叔山无趾)가 절름발이입니다. 무지라고 하는 게 지자가 발뒤꿈치죠. 벌을 받아서 발 뒤꿈치가 잘리는 형벌을 받은 사람. 발뒤꿈치가 없는 사람이 무지입니다. 숙산무지와 공자 이야기입니다. 魯나라에 절름발이인 叔山无趾란 사람이 있었는데 중니를 찾아와 뵈었다. 공자를 찾아 온거죠. 중니가 말했다.

“그대는 이전에 행동을 삼가지 않아 이미 죄를 범해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비록 지금 나에게 와서 배운들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이미 당신은 양생이 못됐다. 양생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을 잘려서 이 지경이 됐으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배운다고 해도, 그걸 미쳐 과거로 올라가서 그걸 그 일을 바꿀 수 없다. 뭔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숙산무지가 항변하는 내용에, 나는 다만 세상의 일에 힘쓸 줄 몰라 내 몸을 함부로 하였으니 내가 이 때문에 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온 것은 아직 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발은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죠.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수단인데, 그게 이제 일부가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려고 애씁니다. 하늘은 덮어주지 아니함이 없으며, 땅은 실어주지 아니함이 없다. 천지 같은 존재로 일단 공자를 본 거죠. 나는 선생님을 하늘과 땅이라고 여겼는데 어찌 선생님이 이 같을 줄 알았겠

www.artnstudy.com

습니까? 하고, 숙산무지가 얘기 하니까.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뺐습니다.

공자가 들어오라고 하고, 내가 잘 못했다. 내가 좁은 식견을 가졌으니까 들어와라. 그 다음 숙산무지가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숙산무지가 돌아간 다음에 공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저 숙산무지라는 사람은 이미 다리가 잘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 하물며 멀쩡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죠. 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내면의 가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기행은 자기 몸을 지리하게 한다. 외형의 모습에 구속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리기형이라고, 몸뚱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럼 지리기득은 뭐냐? **외형에 구속되지 않고, 내면을 추구하는 것이 내면의 가치. 곧. 덕을 추구하는 것이 지리기형이라면, 지리기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의 가치조차도 그 사람의 삶을 구속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면의 가치인 덕을 추구하는 그 조차도 넘어서 버린 경지.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삶을 해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 네 번째 이야기 - 노나라 애공과 애태타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번역된 문장을 읽겠습니다.

衛나라에 용모가 추악한 사람이 있는데, 哀駘它라고 합니다. 남자들 중에 그와 함께 지내본 사람은 그를 사모하여 떠나지 못하며, 여자들은 그를 보고나면 자기 부모에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그의 첩이 되겠다.'고 청하는 사람이 몇 십 명인데도 그런 사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가 남보다 앞서 인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게 어떤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 처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훌륭한 독재자라면 그 독재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죠. 독재주의는 이미 민주주의의 정치적 행위가 되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좋은 독재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돼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 이전의 사회에서 독재 상태에서 훌륭한 독재자 그렇지 못한 독재자가 있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훌륭한 독재자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견해를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시키고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무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무능한 게 아니죠. 정치적인 능력인데. 그게 훌륭한 독재자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인도하는

www.artnstudy.com

것은 꼭 남만 따라 가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뭘까요?

상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창은 없고, 본문에 보면 위상융은 기창자에 의하여 창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창은 선창입니다. 언제 나가서 창과 하는 겁니다. 창은 부를 창자거든요? 부창부수 그러잖아요.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따라간다. 뭐 이런 뜻인데, 이리 오너라. 부르는 게 아니라요. 남이 선창한다, 인도한다 그 뜻입니다.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그것도 부창부수의 한 경우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딱 노래하는 그 부분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인도한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없고, 화가 난다. 라는 겁니다. 화는 화답입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옳을 때 그 옳은 견해를 따라가는 것이 화답이거든요? 노래를 다른 사람이 먼저 하면 나중에 답가로 따라 부르는 것도 화이긴 합니다. 반드시 노래만으로 국한 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데도 화인이죠. 화인. **선창하는 경우는 없고, 다른 사람을 따라갈 뿐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이익을 주거나 권력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가치가 있는 거죠. 내면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항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믿지 않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인이 아니다. 인은 무가치 한 거다. 왜? 인의를 익힌 군자는 자기가 인의를 익힌 군자는 자기가 인의를 실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의를 실천하게 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항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적인 제한. 이게 사람을 바꾼다고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따르잖아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금방 따르죠. 피해를 보기 싫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상항은 그런 사람을 못 만나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재나 강제력 없는 가치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상항의 입장이에요.

공자는 저렇게 얘기하고 보면 내가 안회를 제자로 받아들인 뒤로 사마천 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로가 이제 무사거든요. 용맹한 사람입니다. 내가 자로를 제자로 받아들인 뒤로 악성이 내 귀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다. 천하에 내 욕하는 소리가 없어졌다.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공자를 욕했다가는 자로가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로를 평가한 것이라면 안연을 보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연이 내 제자로 들어오고 나서는 문인들이 더욱 친해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제자들이 더욱 사랑하고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죠. 그런 제자에서는 그냥 끌고 와야죠. 그냥. 근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거죠. 안연이 한 게 없어요. 가난하고, 한 그릇의 밥. 한 병의 마시는 물. 그걸 같고, 누추한 거리에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연은 불개기악이라고 하는데, 이 즐거움은 뭐냐? 공자가 락을 얘기할 때는 화락을 이야기 하는거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안연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매력이죠. 사람의 관계를 조절하고, 불

www.artnstudy.com

편함을 해소하고, 침해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있음으로서 해서 그 사람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편안해 지는 겁니다.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보죠.
임금의 지위로 사람들의 죽음을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재물을 모아서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부자도 아니고, 게다가 그 추악한 꼴이란 천하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하고, 남의 주장을 따르기만 하고 먼저 나서서 인도하지 않으며, 지식이 사방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데 모든 남녀가 그 앞에 모여드니 이 사람은 반드시 보통사람과는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과인이 불러서 살펴보았더니 과연 추한 용모로서 천하를 놀라게 할 만합디다.

과인과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 과인은 그 사람됨에 마음이 끌리더니, 1년이 되기 전에 과인은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 나라에 재상 자리가 비어 있어서 과인이 그에게 국정을 맡기려고 하였더니, 그는 한동안 무심히 있다가 응낙하였는데 얽매임이 없어서 마치 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인은 갑자기 그에게 국정을 맡기려고 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얼마 안 되어 과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과인이 슬퍼서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았으며, 이 나라의 즐거움을 함께 할 사람이 없는 듯했습니다. 나라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니가 말했다.
제가 초나라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새끼돼지들이 죽은 어미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조금 있다가 깜짝 놀라서 모두 그 어미돼지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어미돼지의 시선이 자기들을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 뿐이며 어미돼지가 본래의 모습과 같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새끼돼지가 어미돼지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체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 어미 돼지의 새끼 돼지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새끼들이 도망가는 거죠.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은 장례 치를 적에 운삽으로 장식하여 보내지 아니하며, 운삽이라고 하는 것은 보래 관에 구렁무늬와 새 깃털로 장식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신체를 아름다움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은 신체가 온전히 보존되지는 못했으니까. 근본이 상실된 거죠. 발 잘린 사람은 신발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두 그 근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이 뭐냐? 덕이다. 라는 거죠.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근본이다.
천자의 後宮이 된 사람들은 손톱을 깎지 않고, 귀를 뚫지 아니하며, 새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궁전 밖에 머물게 해서 다시 숙직을 시키지 못합니다. 육체가 완전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걸 완전히 지키려고 이와 같이 하는데 하물며 德이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덕이 완전한 사람은 다른 육체가 완전하면 그 육체가 훼손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덕을 훼손되지

www.artnstudy.com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육체의 완전함을 지키려고 하는데, 덕을 완전하면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애태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으며, 공적이 없어도 군주가 친애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맡기게 하면서도 오직 그가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하였으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재능이 완전하고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덕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덕입니다. 최상급의 표현이고요.

"무엇을 일러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까?"
중니가 말했다.
평평한 것으로는 정지하고 있는 물이 가장 성대합니다. 평평하다고 하는 것은 물이 이렇게 파동이 있는 상태. 그러면 물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평평해 지겠죠. 이를테면 명경지수라고 그러잖아요? 멈추어 있는 것. 평평한 거죠. 지금도 수평을 측정 할때는 수증기를 쓰죠? 제 시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수평이 맞는지 알 수 있는데, 나침반이 수평상태라야 정확하잖아요. 그 물을 비유로 쓴 겁니다. 지금도 물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안에서 잘 보전되고, 밖으로 波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덕을 잘 보존해가지고, 바깥 외물에 의해서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평한 상태. 덕이란 완전한 평정을 닦은 것입니다. 완전한 평정을 닦은 사람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평천하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치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제가가 되는 거고요. 수신도 고르게 담는다는 뜻이에요. 수신이라는 게 몸을 닦는 건데, 수라고 하는 건 고르게 닦는 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능력만 잘하면 그걸로 된다. 뭐만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골고루 잘하는 겁니다. 인의예지신무 이런 것 처럼요. 유가스타일로 해석이 됐는데, 제가 장자를 번역해서 이렇게 드리면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유가적 해석이 너무 많다. 이러는데, 저는 조금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신문에 그런 식으로 실린 적이 있어요. 유가적. 내가 유가인가? 이러는데, 제가 어디 도가 학회에 갔어요. 정통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째 여기를 오셨나?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왜 제가 졸지에 정통 유학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유가다 도가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요. 특히 장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그 장자가 어떻다. 노자가 어떻다. 미리 이렇게 도가다 유가다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보면 말이 안돼요. 내용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원문을 보세요. 平者는 水停之盛也라 其可以爲法也니 內保之하고 而外不蕩也할새니라 그러고 나오죠? 德者成和之脩也라 닦을 수자거든요. 이게 이 수자는 이 수자나 같이 씁니다. 원래 이게 정확한 글자로 쓰고, 같이 써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지수 성화는 성은 완전하다는 뜻이고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곡식이 완전하게 익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일년 춘하추동이 완전히 끝난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룰 성자 가득 찼다는 뜻도 되고요. 성자는 가득 찼다는 글자도 됩니다. 완전하다는 뜻이고, **완전한 평정상태를 닦을 것**입니다.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德

www.artnstudy.com

不形者는 物不能離也하나니이다. 사람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한 평정이라고 하는 게 평도를 완전하게 평평한 것. 또 수신이나 제가나 치국이나 다 이렇게 고르게 살린다는 뜻인데, 다만 평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평. 평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할 때는 시간을 고르게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집안사람 각각의 집안사람들에게만 공평하면 되지. 다른 나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집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집안이 이 속에서 공평하다는 거죠? 천하는 자기 나라만 공평하게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각국이 천하라는 틀 속에서 평안해야 되죠. 공정 공평해야 되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 적용해도 어떤 나라가 다른 국제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그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도, 다른 나라도 공정하게 똑같은 수준의 명분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이를테면 평화라는 메시지를 내세운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평화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 다섯 번째 이야기 - 인기지리무순과 옹앙대영

‘인기’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이 없다는 뜻입니다. 절름발이 사람인데, 지리는 아까 지리소에서 나온 것처럼 사지가 지리멸렬한 사람이고, 게다가 무슨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언청이다. 입술이 없다. 언청이다. 발도 없고, 사지는 지리멸렬하고, 언청이기까지 한 인기지리무순이라는 사람이 위나라 영공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나라 영공이 굉장히 기뻐 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읽어 보죠. 인기지리무신이 위령공에게 유세하자 영공이 기뻐하였는데 그 이후로 온전한 사람들을 보면 목이 가늘고 길어 이상하게 느껴졌다. 옹앙대영이 옹은 항아리 옹이나 앙이나 다 같아요. 옹왕대영. 항아리처럼 커다란 혹. 항아리처럼 커다란 혹을 목에 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나라 환공을 만나서 제나라 환공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온전한 사람을 보면 목이 가늘고 길어서 이상하게. 저 사람 왜 혹이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죠.

그 때문에 덕이 뛰어나면 외형 따위는 잊어버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니 이것을 일러 정말 잊어버렸다고 한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거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상투적 의미인데 오히려 이게 앞쪽의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뒤의 이야기가 상투적이고, 이런 옹앙대영같이 기형인 사람인데, 이들과 오랫동안 있으면 그 기형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전혀 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교육현장에서 그런 일이 많죠. 분리해서 왜 뭐 개탄을 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한 식의 개탄일거예요.

www.artnstudy.com

교육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등생하고 학습장애아가 같은 데서 공부를 하느냐 이러는 데요. 당연히 같은데서 공부를 해야죠.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죠? 진도에 방해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교육의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교육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교육의 기능이나요? 교육이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의 정신세계인가요? 그게. 잘하는 사람만 따로 뽑아서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요? 글쎄요. 비판의 가치가 걸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애초부터 함께 같이 있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요즘은 조금 다르죠. 요즘 무슨 광고 같은 데서 나오더라도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중에 끼어있는 광고가 종종 나오죠. 무슨 빛이 있어서 어쩌고 하는 광고를 보면 한 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들어가 있고, 교실에도 그런 학생이 있고, 이래야 나중에 그 사회 속에서 화합되는 거지. 방해가 된다고 배제시키고, 특수학교 만드는 것은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게 교육이라면요. 근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고요.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기본 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느끼지 않으니까. 내 자식만 특별하게 교육시켜 주는 제도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게. 기러기 아빠가 슬프다. 이런 게 전혀 슬프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비극이지 그 슬픔을 느끼는 것은 마치 조폭영화 만들어 놓고, 조폭도 굉장히 괴롭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자기 괴로움을 얘기하는 남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 괴로움을 해소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비슷해가지고, 근데 혹시 기러기 아빠 안계시죠? 표현이 그런 겁니다. 실제 그런 체제에 몰려서 그렇게 된 경우야 어찌 같이 슬퍼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 맥락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덕충보가 끝납니다.

▲ 장자의 가장 훌륭한 가치, 덕

장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덕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치는 바로 덕이다. 그 때문에 성인은 자유롭게 노닐어서 지식을 副産物로 여기며, 사람을 구속하는 예의를 아교풀로 여기며, 세속의 덕을 기워 붙이는 것으로 여기며, 기술을 장삿속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은 억지로 도모하지 않으니 어디에 지식을 쓰겠으며, 깎아 장식하지 않으니 어디에 아교풀을 쓰겠으며, 본래의 자기[道]를 잃어버리지 않으니 어디에 세간의 덕을 쓰겠으며, 팔지 않으니 어디에 장삿속을 쓰겠는가. 이 네 가지는 자연이 길러주는 것이니, 자연이 길러준다는 것은 하늘이 먹여주는 것이다. 이미 자연에서 먹을 것을 받았으니 또 어디에다 인위적인 것을 쓰겠는가. 외형의 가치가 아닌 내면의 가치인 덕이다. 물론 인간세편 마지막 지리소 이야기에서는 그 내면의 가치인 덕조차 초월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리기덕을 요구하잖아요? 그 덕조차 지리하게 초월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뚱이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www.artnstudy.com

것을 넘어서서 덕으로 가는 것. 덕이 훌륭하면 이 바깥의 형체는 잊어버리는 것. 이게 올바른 것이고, 그 반대로 덕을 잊어버리고 형체를 잊어버리고 진짜 망각은 잘못된 것이다. 장자는 망각을 본의로 쓸 때도 있고, 여기서처럼 나쁘게 쓸 때도 있습니다. 진짜 잊어버린 것. 잘못된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린것.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망형. 형체나 외형의 아름다움. 이런 구속되는 태도를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려야 할 것 많죠. 기억이 권력이고, 망각은 그 권력을 잃어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니체가 그렇게 얘기 한 것 같습니다. 기억은 병이다. 치료해야 하는 거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억. 그런 걸 다 잊어버려야 되요. 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장자에서 얘기하는 덕충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를 하는 것이 누구인가라고 할 eo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나 출세하거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서 소외받고, 고통 받고 배제된 정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육체적인 불구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끊임없이 이야기 하고요. 덕충부는 이 정도로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종사. 태종사라고도 하는데,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도를 터득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www.artnstudy.com